

'그 날' 시놉시스

박아영

1> 로그라인

'그 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남자, 과거로 돌아가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 그 날의 청렴이 있었기에 오늘 하루가 밝다는 것을 깨닫는다.

2>주제 및 기획의도

우리는 안정적인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부정부패 짚은 한 번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그 날' 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 그 날 조금 더 노력했다면, 그 날 조금 더 빨랐다면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 날이 주인공에게 준 교훈은 후회, 실수가 아니라 깨끗한 청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3> 인물

강건 (40)

한 집안의 가장이다. 과거 잘나갔던 샐러리맨이었지만 현재 소형차로 정수기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팀장 시절,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비교적 깨끗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번번이 승진하지 못하고 누락 되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시도 했지만 결국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깨닫는다.

최하늘 (37)

강건의 아내이다. 대학시절부터 연애한 강건과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심성이 곧고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 아들 마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 청렴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강마루 (10)

강건과 최하늘의 아들.

그 외

김과장 (46)

3년 전, 강건에게 승진을 위해서는 은밀하게 청탁을 해야 한다고 조언 했던 회사 선배

김영훈 (40)

강건의 오래된 동네 친구

4> 간략한 줄거리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며 정직하게 살아왔던 강건은 '그 날' 청탁을 하지 못해 승진심사 떨어졌다고 현재 영업직이나 하고 있다며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벚꽃구경을 가기로 한 날 밀린 업무 때문에 늦게 출발한 강건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3년 전 '그 날'로 타임리프 하게 된다. 강건은 그 날 못 이룬 인사 청탁을 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과거를 바꾸기는 쉽지만은 않다. 2번의 타임리프를 하면서 강건은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 부정적인 일로 성공하는 것 보다 소중한 것은 청렴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마음,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이뤄나간다.

그 날

박 아영

등장인물

강건 (40)
최하늘 (37)
강마루 (10)
김과장 (46)
김영훈 (40)

S#1. 벚꽃이 피어 있는 사거리 / 낮 (3년전, 과거)

막힌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다시피 서 있다,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강건. 조수석에 놓여있는 베이커리 선물세트와 시계를 번갈아 본다. 뽕뽕 거리며 여기저기 끼어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강건, 답답한 마음에 클락션을 누르지만 소용없다. 바지춤에 느껴지는 진동 (E)

강건 네 선배.
김과장 강팀장!!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강건 죄송해요 지금 차가 밀려서...
김과장 그럼 뛰어 오던지, 날아오던지, 무슨 수를 내야 할 거 아니야!! 나까지 난감하게 시리, 승진하려고 했다가 나도 찢리면 니가 책임 질거야???!
강건 (넥타이를 푸는) 빨리 갈게요 죄송합니다.

강건, 핸드폰을 바지에 넣고 이리저리 끼어들려고 한다. 옆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하던 강건, 갑자기 바람에 흩날린 벚꽃 때문에 앞 창문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다.

강건 (당황해하는) 어어????!! 어거어어억????!!아아아아아악!!!

차 급속도로 움직인다. 강건 자동차 핸들을 짝 부여잡는다. 우당탕거리던 차 멈춘다. 고장 난 와이퍼 차 앞 유리에 붙은 벚꽃 잎을 쓸어 치우면

Title in. 그 날

S#2. 집 안/ 밤 (3년 뒤, 현재)

최하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식탁에 앉아있는 마루, 밥을 먹는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 시금치, 나물뿐이다. 마루 밥 투정을 한다.

마루 엄마, 고기 없어?
하늘 고기보다 더 영양가 좋은 시금치가 있잖아요, 얼른 먹고 공부해야지.
마루 맨날 풀, 풀 어지러워서 풀썩 하고 쓰러지겠다.
하늘 아부지, 보너스 받으면 고기 먹으러 가자 착하지, 아들?

마루, 뼈죽거리며 밥을 먹는 등 마는 둥하며 먹는다. 현관 문 열리고 강건 들어온다. 술에 취한 강건. 통닭 한 마리를 사서 들고 온다. 하늘, 고무장갑을 낀 채 아니꼽게 바라본다. 강건, 씻지도 않은 채 식탁에 앉아 통닭이 든 봉지를 찢는다.

강건 (마루의 얼굴 부비는)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뽀너수 받아서 고기 사왔다~!
마루 술 냄새나! 아빠, 나 이런 거 말고 양념 된 거 먹고 싶다니까.
강건 (마요네즈 쪽 뿌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되지! 그치 아들?
마루 아빠!
하늘 좀 일찍 집에 오지...
강건 사랑하는 마누라~~
하늘 오늘 보너스 받았어?
강건 그래~! 받았지~~!
하늘 정말?? 얼마나??
강건 여기 이만큼 물 한잔 먹고, 또 물먹고 또 여기저기서 나를 갖다가 물먹이고. 그래서 술도 한잔, 두잔 먹고.

휘청거리는 강건, 하늘 마루에게 눈치를 준다.

하늘 마루야, 먹었으면 양치하고 얼른 자.
마루 응 엄마... 아빠! 아빠 보너스 받았으면 내일 외식 하는거야?? 나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있는...
강건 외에에식?? (치킨 다리 드는) 외식 이런 게 다 외식이이지. 무슨 외식을 또..
하늘 (말 자르는) 강마루.
마루 알았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마루 방으로 들어간다.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S#3. 안방 안 / 밤

강건, 대자로 누워 코를 그르렁 거리며 잔다. 한심하게 보는 하늘, 강건의 등을 무자비하게 때린다. 아파하면서 뒹굴거리다가 떨어지는 강건, 일어나자마자 불쑥 화를 낸다.

강건 뭐 하는거야!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하늘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강건 힘들면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게 뭐 대수인가??
하늘 애가 보고 자라잖어. 맨날 술먹고 들어오고
강건 애가 또 보고 자라면 어때? 언제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뭐 일 잘 풀린 적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물장수나 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여기저기 굶신굶신거려야 하고..
하늘 여보.
강건 내가 그 날 사고만 안 났어도.. 내가 그 날 약속만 지켰어도..
하늘 그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잖아요.
강건 내가 어디 안하게 돼?! 그 날에 약속만 잘 지켰어도..
하늘 당신이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있는 거예요.

강건 씩씩거리다가 방문을 열고 나간다. 하늘, 어딜 또 가느냐고 물으려고 하지만 강건 나가고 없다. 마음이 답답한 하늘.

S#4. 포장마차 밖 / 새벽

동네 근처 포장마차, 벚꽃 나무 아래 테이블에 앉은 영훈과 강건. 어묵 한 그릇을 시켜놓고, 술을 마신다. 강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한다.

강건 내가 어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냐고.. 마누라는 맨날 돈 없다고 그러지, 아들 놈은 외식하자고 조르지... 예전에 잘 나갔던 나 였어봐... (어묵꼬치 드는) 지금 이 거 말고 회 먹으면서 사케 마셨을테다.
영훈 그 예휴, 어찌냐 인생이 그런데 바꿀 수도 없고..
강건 (혼잣말)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그 날로 돌아 갈 수만 있다면....

강건 한숨을 쉬며 술 한잔을 마신다. 벚꽃잎 바람에 우수수 떨어진다.

S#5. 집 안 / 아침

아침부터 도시락 싸느라 정신없는 아내, 소풍 갈 생각에 신나있는 아들, 김밥을 하나 둘 집어먹는다. 숙취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배를 뱉뱉 굶는 강건, 김밥을 먹는다.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하늘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강건 무슨 날?
하늘 오늘 마루랑 놀러 가기로 했잖아.
강건 꽃놀이하는 무슨..내가 꽃 때문에... 어? 그리고 나 오늘 일해.
마루 오늘 엄마,아빠 결혼 기...
하늘 (마루의 입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따가 퇴근하면 오라구. 나 줄 것도 있고.. 알았지?

강건, 귀찮은 듯 주방에 의자에 걸린 수건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다. 하늘, 통장을 보고 뿌듯해한다. 그리고서는 흰 봉투에 넣는다.

S#6. 도로 / 낮

'정수기 A/S' 스티커가 붙어 있는 흰색 소형차, 강건, 클락션을 이리저리 누르고 여기저기 끼어들기 하며 운전한다.

강건 (핸드폰 받음) 네 고객님. 지금 갑니다. 음.. 대략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아니, 20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강건, 전화를 끊고 조수석에다가 핸드폰을 던진다.

S#7. 벚꽃이 피어있는 사거리 / 낮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다시피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강건, 뺑뺑거리며 끼어들기 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 강건, 답답한 마음에 클락션을 누르지만 소용없다. 바지춤에 느껴지는 진동 (E)

강건 (핸드폰을 열고) 네 사모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네.. 한.. 이십오분정도요?

강건 차 앞에 끼어드는 빨강색 소형 차. 강건 갑자기 짜증이 솟구친다. 강건 따라서 끼어들기 하려고 할 때 강건의 마 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벚꽃이 흩날린다. 순식간에 차 앞 유리를 뒤덮는다. CU 강건 핸들을 돌려다가 앞 차와 박고 강건이 탄 차, 빙글빙글 돈다.

강건 (당황해하는) 어어????!! 어거어어억????!!아아아아아악!!!

차 급속도로 움직인다. 강건 자동차 핸들을 꼭 부여잡는다. 우당탕거리던 차 멈춘다.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S#8. 벚꽃이 피어 있는 사거리 / 낮 (3년 전 과거)

강건 고개를 든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강건, 하지만 뭔가가 이상하다. 중형 차가 소형 차로 바뀌어 있고 양복을 입고 있다. 아리송해하는 강건

강건 어?? 뭐지?

강건 조수석에 있는 베이커리 세트를 보며 아리송해한다. 바지 속 진동이 계속 울린다. 부재중 5통. 강건 뭔가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전화를 조심스레 받는 강건.

강건 여보세요??

김과장 강팀장!!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강건 네?? 저.. 김과장님??

김과장 그래 내가 김과장이다!! 너 어디냐고 그러니까!

강건 아그러니까.. 죄송해요 지금 차가 밀려서... 그러니까 끼어들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김과장 그럼 뛰어 오던지, 날아 오던지, 무슨 수를 내야 할 거 아니야!! 나까지 난감하게 시리, 승진하려고 했다가 나도 찢리면 니가 책임 질거야??!

강건 네?? 저기.. 아 그러니까..죄송합니다.

강건, 핸드폰을 바지에 넣고 시계를 본다. 오후 2시 35분. 강건, 핸들을 움직여 이리저리 끼어들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빙빙 돌기 시작한다. 강건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강건 (당황해하는) 어어????!! 어거어어억????!!아아아아아악!!!

S#9. 도로 / 낮 (현재)

핸들 위에 고개 숙인 채 가만히 있던 강건, 유리창을 두들기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깬다. 유리창 밖 사람, 유리창을 두들기며 화를 낸다. 강건, 어안이 병병해진 채로 창문을 연다.

강건 (창문을 내린다.)

사람1 아니 운전을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를 내요?? 시간도 없어 죽겠구만!!

강건 저기요

사람1 왜요!

강건 지금 여기 2016년 맞죠?

사람1 (어이없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거예요 지금!! 아저씨!

강건, 정신을 차린다. 어느새 정수기 유니폼 옷을 입고 있는 강건. 어안이 병병하다.

S#10. 병원 안 / 오후

강건 진찰을 받고 나온다. 걱정스러운 눈길로 강건을 보는 하늘. 강건, 오른 팔을 휘두른다.

하늘 괜찮대??
강건 어?? 어..
하늘 그러게 조심 좀 하지. 끼어들기 하지 말라니까..
강건 내가 무슨 끼어들기 하고 싶어서 그랬나 어디! (팔 아픈) 아이고 팔아.
하늘 괜찮아?
강건 마누라 잔소리만 안하면 만사 오케이네요.
하늘 (빠죽거리느) 까부는 거 보니 괜찮네 뭘
강건 아아아앗 아프다니까 그러네!

두 사람 투닥거리며 병원을 나간다.

S#11. 집 안 / 밤

하늘 라면을 끓여서 식탁에 내려놓는다. 맛있게 먹는 강건.

하늘 첫 끼야?
강건 (라면 먹는) 오늘 먹을 세가 언제 있었어.
하늘 조심 좀 하라니까 정말.. 속상하게.
강건 오라고 빨리 오라고 다그치는데 어떻게 끼어들기 안할 수가 있나 어디,
하늘 새치기도 안하던 사람이..
강건 어디 빠 부러진 데도 없고 간단히 물리치료만 하라는데 뭘. (라면 먹다가) 아니 그런데 있잖아 여보.
하늘 응 왜?
강건 아.. 아니다.

강건 라면을 마저 먹는다. 영훈에게서 전화가 온다.

강건 (전화 받는) 어? 영훈아. 지금 나갈게.

강건 라면을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옷을 입는다.

하늘 또 어딜가???
강건 잠깐만 뭐 할 말이 있어서 나갔다가 올게!!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강건 서둘러 나간다. 강건 바라보는 하늘, 마음이 썩 좋지 않다.

S#12. 공원 안 / 밤

강건 진짜 였다니까 그러네!!
영훈 애가 요새 피곤하다고 하니까 어디 아프가..? 너 아님 알콜 너무 많이 먹어서 벌써 치매오는거 아냐??
강건 아니 이새키가 진짜! 그거 아니래두!
영훈 야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과거에 돌아갔다는게 꿈꿨겠지.
강건 아니라니까 그러네 막 울렁울렁하고, 벚꽃잎이 우수수 막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영훈 너 오늘 많이 놀랐나보다 얼른 집에 가서 쳐자 이놈아.
강건 이건 분명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야.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어휴! 그런데 어째, 날려버려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확 다 날려버렸네.
영훈 니 말이 맞다면 혹시 아냐? 또 갈 수 있을지.
강건 뭐??
영훈 아니. 난 또 뭐라고 말 하는거야, 아픈 애 데리고 얼른 들어가세요. 재수씨 걱정하시겠다.

강건, 의미심장한 표정 짓는다.

S#13. 집 안/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유니폼을 입는 강건, 서두른다. 하늘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하늘 벌써 출근 시간이야?
강건 (넥타이 매는) 어?? 나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보려고.
하늘 지금 이 시간에??
강건 오늘 좀 알아봐야 할 것도 있어서, 아직 차 안 맡겼지??
하늘 응?? 응. 보험 회사가 내일 온다고 해서 아직 정비소에 안 맡겼지.
강건 그래?? 알았어 나 다녀올게!!!
하늘 밥이라도 먹고 가지!

하늘 이미 문이 닫겨 버린 집 문을 멀뚱히 본다. 하늘, 가방 속 에 흰 봉투를 본다.

하늘 어제 줘야 했는데...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S#14. 동네 주차장 / 오전

차를 세워두고 노트를 꺼내들고 고민하는 강건.

강건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 오후 2시 35분 사고가 났지. 어제 나는 몇시에 사고가 났지? 아 그래 핸드폰!!

강건 핸드폰을 꺼내 통화목록을 확인한다.

강건 어제 오후 2시 25분 싸가지 아줌마에게서 뉘달 전화가 왔지. 그리고 곧바로.. 끊자마자..

강건 크게 동그라미를 친다. 타임리프!

S#15. 사고가 났던 도로 / 낮

긴장한 표정으로 사거리에서 서 있는 강건. 빗꽃 하늘하늘하게 날린다. 강건, 차 시계를 본다. 오후 2시 15분.

강건 10분 남았다 이거지. 그치? 후...

긴장된 강건. 서 있다가 앞에 끼어들기를 하려고 한다. 뒤에서 울리는 뽕뽕거리는 차 소리에 끼어들기 실패한 강건. 뒤에 차, 욕을 하며 지나간다.

강건 아씨! 후.. 다시.. 한번 더.. 으아아아아아악!

긴장한 강건, 괴성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끼어들기에 시도를 한다. 결국 앞차를 박는다. 순간 빗꽃이 흩날린다. 순식간에 차 앞 유리를 뒤덮는다. 강건 핸들을 꼭 붙잡는다 빙글빙글 도는 차. 차 급속도로 움직인다. 강건 자동차 핸들을 꼭 부여잡는다. 우당탕거리던 차 멈춘다.

S#16. 빗꽃이 피어있던 거리 / 낮 (3년 전 과거)

강건 고개를 든다.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바뀌어 있다. 양복을 입고 있는 강건, 강건 조수석을 황급히 본다. 베이커리 세트가 보인다. 그 안에 보이는 흰 봉투.

강건 어?? 어????!! 진짜로 과거로 온거야?????? 예스!!!!!!!!!!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 바지 속 진동이 끊임없이 울린다. 부재중 5통. 강건 황급히 전화를 받는다.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김과장 강팀장!!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강건 과장님!! 김과장님 맞으시죠???!
김과장 그래 내가 김과장이다!! 너 어디냐고 그러니까!
강건 아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뛰어서, 아니 날아서 갈게요!!!!
김과장 뭐?? 아무튼 왜 늦어! 너 승진하려고 했다가 나도 찢리면 니가 책임 질거야??!
강건 저 지금 완전히 빨리 날아갈테니까 딱 십분만, 아니아니, 지금이 몇분이죠??

강건 차안 시계를 본다. 오후 2시 30분.

강건 제가 5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강건 전화를 끊는다. 강건, 신나는 마음을 주저앉히고 차를 몰려고 하는데 차들이 주차하다시피 멈춰 있다.
뽕뽕, 거리는 강건. 끼여 들기를 한다.

강건 인생, 모 아니면 도지!!! 다 비켜!!

강건 핸들을 좌, 우로 신속하게 바꾸며 질주한다. 이리 저리 무리하게끔 끼여들기를 한다.

강건 비켜 다 비켜라고 내 인생 방해물 다 비켜!!! 나 이제 고속승진한다~~~~~!!!!!!

순간 옆에서 끼여 들기 하던 차와 함께 박게 된다.

강건 어어????어어어아아악!!!!!!

강건 눈을 뜬다. 가드레일에 박은 강건 차. 벚꽃 유난히도 많이 흩날린다.
강건, 시계를 본다. 2시 34분. 짜증스러운 마음에 몸부림을 친다.

강건 아효!!!!!!

강건 차에서 내려서 발을 동동 구른다. 김과장에게 전화를 거는 강건

강건 여보세요?? 저기 과장님!!! 저 진짜 무조건 가려고 끼여들고 새치기 하고 그랬는데 진짜 갑자기 사고나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딱 1분만 1분만요 제발!!

강건 화가나서 벚꽃나무를 발로 친다. 벚꽃잎 우수수 떨어져 흩날린다.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S#17. 병원 / 오후 (현재)

강건 눈을 뜬다. 하늘이 하얗다.

강건 여기 천국인가??

영훈 천국같은 소리 하네.. 너 진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어휴 내가 재수씨 얼굴보기 창피해서 정말.

의사 일어나셨네요. 다리 부러진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큰일 날뻔 하셨어요.

영훈과 하늘 의사에게 고개를 숙인다. 의사 진료를 마치고 나간다.

영훈 뒤돌아서면 하늘, 눈이 시뻘개져 강건에게 온다.

하늘 괜찮아?

강건 어?? 어.. 여기 근데 어디야?

하늘 진짜로 괜찮아?

강건 괜찮대도 그러네.. 지금.. 혹시 2016년 이지..?

하늘 (눈물이 난다) 안 괜찮지..? 왜 안 괜찮다고 말 안해.. 왜 힘들다고 말해.. 나랑 마루 두고 죽으려고 했어??
어?? 왜 그 래 정말!!

하늘 자리에 주저 앉아 영영운다. 강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

영훈 사고 났었어 이자식아. 왜 또 앞차를 박냐. 이만해서 다행이지.. 너 정신 잃었었어. 재수씨가 얼마나 놀랐는 데.. 내가 어제 니가 개소리 할때부터 묶어 놔야 했는데...

강건, 어안이 병병해져 우는 하늘을 본다. 하늘을 달래며 나가는 영훈.

강건 아.. 또 이렇게 끝났구나...

S#18. 병원 테라스 / 늦은 밤

강건, 영훈 병원 테라스에 앉아 있다. 영훈, 따뜻한 차를 건넨다.

영훈 안에서 이야기 하면 너 제대로 말 못할까봐.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던거야?? 그리고 뭐가 끝났다는거야??
진짜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는)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지?

강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였으면 좋겠다.. 나도 오죽했으면 이러겠냐?

영훈 말해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강건 너도 알지? 나 진짜 하라면 하고 남으려면 남고 개처럼 열심히 일 한거.

영훈 알지.. 내가 왜 모르겠냐.. 너 열심히 일해서 우수사원도 되고 후배들도 좋아했잖냐.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강건 그럼 뭐해. 지금은 영업 뛰는 인생인데. 그 날 청탁 안한 게 너무 너무.. 후회가 돼서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봐.

영훈 너.. 또 그 소리구나.

강건 내가 그 날 청탁만 했어도.. 이렇게 지내고 있었겠어?? 하늘이 고생시키게 하는 것도 싫고, 마루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싶고... 나도 내 자신이 싫다.

영훈 야, 너.. 그 날 이후에 일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강건 뭐?? 뭐를??

영훈 니가 너무 힘들어 할까봐 싶어서 그 회사 관련된 일 일부로 말 안했는데.. 너 이렇게 힘들어 하는 줄 알았으면 말해줄 걸 그랬다.

강건 뭐?? 대체 너 뭐 말하는 거야??

영훈 그게 사실.. 나도 한 참 뒤에 들은건데 말야. 청탁했던 김과장, 결국 그만뒀대.

강건 뭐???? 김과장이 왜???

영훈 청탁하고 이런다고 사내에 소문 안 좋았잖아. 그래서 경기도 시골 쪽으로 발령 받았는데 사원들한테도 소문이 짝 나서 좀 회사생활이 힘들었나봐.. 그래서 그만뒀대.

강건 뭐?? 그만 뒀다고?? 스스로?? 왜?? 그 좋은 회사 놔두고 그럴거면 나한테..

영훈 야, 내가 이런 말하기 뭣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은거지. 그 사람은

강건 진짜 중요한거...?

영훈 그래 임마. 니가 회사라면 질색해서 말안해줬지만 후배들 너 이야기 많이 해. 뭐하고 지내냐고, 잘 지내냐고 하고 말야.

강건 (말이 없다.)

영훈 그니까 임마, 힘내라고. 영업 뛰면 어떠냐??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너 하늘씨 생각해서 그러면 안된다. 알지?

강건 알아 임마. 내 마누라거든??

영훈 얼씨구 벌써 다 나왔나보네.

강건 머 이새까?

강건, 영훈 기분 좋게 투닥거린다.

S#19. 병원 안 / 새벽

강건, 병실 안으로 들어온다. 하늘 침대에 기대어 자고 있다. 하늘 손에 든 흰 봉투. CU

강건, 이게 뭔가 싶어 꺼내든다. 통장과 편지가 있다. 통장을 열어보는 강건, 10년 전부터 입금 된 돈이 어느새 500 만원 정도로 모여있다. 강건 편지를 읽는다.

하늘(E) 여보. 나야. 그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 돈은 결혼 10주년 선물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 날 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날 돈봉투가 든 베이커리 선물세트를 줬었더라면 하고는 이야기 하고는 했죠. 여보, 나 역시도 그 날 그 돈봉투를 그 분에게 줘줬더라면, 청탁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편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하게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곤 했지만 그 날 사고가 났던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당신처럼 청렴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고, 우리 마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여유롭지 않은 삶을 살면 어때요? 우리 마루가 정의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 보고 싶지 않아요?

강건, 마음이 먹먹해진다. 강건, 자고 있는 하늘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준다.

하늘 (잠에 든 목소리)여보..?
강건 더 자.
하늘 몸 괜찮아요??
강건 당연히 괜찮지. 나는 마루 아빠인데, 그것도 엄청 청렴한!

하늘 베시시 웃는다. 강건, 하늘의 어깨를 안아준다.

강건 고마워.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깨닫게 해줘서...

두 사람 서로 안고 병원 창가에 비친 밝은 달을 바라본다.

S#20. 벚꽃이 흩날리는 도로 / 낮

차들이 정차되어있는 것처럼 멈춰져 있다.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차들이 느릿하게 움직인다. 모자를 쓰고 한껏 멋 부린 마루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다.

마루 아빠 끼여들기 해 끼여들기!! 얼른 가고 싶단 말야.
강건 마루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쁠텐데 끼여들기하면 되겠어? (창문을 내려준다.) 저기 밖에 봐봐. 벚꽃 참 예쁘지? 이렇게 느리게 가니까 벚꽃 예쁜 것도 볼 수 있는거야.
마루 치...

순간 바람에 벚꽃이 흩날린다.

강건 (핸들을 잡고) 자, 그럼 출발한다!

벚꽃 흩날리면 떠나는 차.

강건(E) 그 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살았다. 왜 조금 더 빨리 깨닫지 못했던 걸까? 나는 기대한 다. 지금처럼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질서 지키며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거라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세상이 꼭 올것이라고..

<2016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FIN